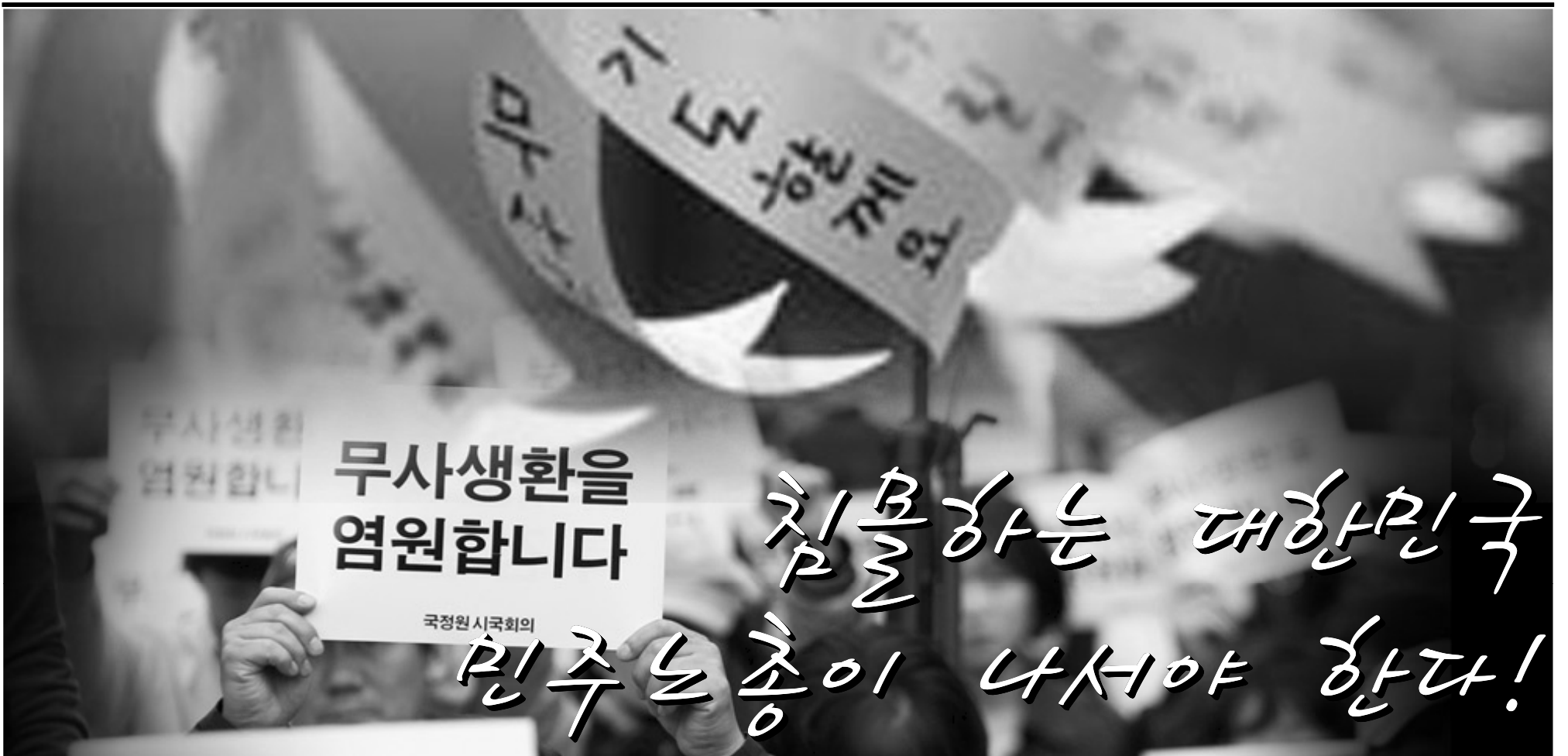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23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4월 2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실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절대 잊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참사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췄다. 모든 국민이 그 날의 참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모든 눈과 귀는 뉴스에 가있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조는 한 명도 되지 못했고,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 사고를 낸 자본과 사고 수습을 전혀 못한 정권은 그저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다.

## 실소유주와 정권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자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 정부의 합작품이다. 세월호는 노후한 선박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무리하게 증축한 뒤, 안전기준도 무시한 채 과적을 일삼았다. 그 와중에 선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렇게 실제 세월호 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익을 쥐어짜냈다. 유병언씨는 이익은 모두 빼가면서 실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해갈 수 있다. 실제 소유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세월호와 소유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고 돈되는 공공부문은 전부 기업에게 넘겨주는 민영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사고 당일날까지도 규제 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을 외쳤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언론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악마', '살인마' 라고 몰아가면서 이 비정규직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다. 현대제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도 정몽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일으켜도 이견희에게는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험공정을 외주화하면 실 소유주는 이득만 챙기고 책임은 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자

현장에서부터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은 우리 금속노조, 민주노총 뿐이었다. 외주화, 간접고용으로 인해 안전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금속노조, 민주노총이었다. 이제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말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 창조컨설팅과 관련 있으면 옷 벗겠다더니..

노조파괴 사업장은 불법과 거짓의 보물창고다. 이번 주인공은 컨티넨탈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창조 컨설팅과 관계없다고 우기더니 꼴 좋게 됐다. 노조파괴 같은 거 없다고 침 튀기며 열변을 토하던 작자들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컨티넨탈이 창조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이 확인된 것만 2억9천만원이다. 어용노조가 생기던 2012년 7월부터 매달 6천만원씩 지급했고, 1억1천만원은 어떤 명목인지 추가로 지급했다. 1억1천만원은 금속노조 조합원 수를 줄여준 성과에 대한 보상금이었을까? 불법 노조파괴 혐의로 지금은 설립취소되고 노무사 자격까지 취소된 창조컨설팅과 컨티넨탈은 무엇을 했을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컨설팅을 했을까?

컨티넨탈자본이 지금까지 보여온 낯짝 두꺼운 행태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창조컨설팅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뭬 수가 있는지. 그 연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으니 당당하게 책임지면 된다. 그 정도로 뻔뻔하게 나왔으면 책임질 각오 정도는 이미 다 했을 거라 믿는다. 노조파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고 옷벗고 회사를 떠나시라. 누구라고 꼭 집어 지칭하진 않겠다.

지금 필요한 건 현장조합원들의 단호한 결의와 투쟁이다. 더 이상 자본과 어용노조의 놀음에 놀아나지 말자. 어용노조는 일부 간부들의 잇속만 차릴 뿐 절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투쟁 4년 만에 현장 조합원 과반수를 넘게 조직하고 있는 경주 발레오만도의 교훈을 잊지말자. 우리는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 노동절, 세월호 추모와 사태 책임 묻는다

전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다.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이들도 많다. 탐욕적인 자본과 무능한 정부를 향한 분노도 건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갖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온 사회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멈춰있다.

누군가는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다. '시체장사'라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세월호 참사가 정권 전복의 도구가 될까봐 두려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들은 결국 이 참사를 통해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운 이들인 것이다.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권력층의 심정인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노총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노동절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진짜 노동자라면 이 참사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갔는지 생생하게 확인한 노동자라면 지금 노동절 행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 ※ 5월 1일 노동절

대전 : 10시 30분 대전시청 남문광장

충북 : 14시 00분 청주체육관 앞 광장 (행진) → 상당공원 시민 분향소

/ 흰 상의, 검은 하의, 노란 리본

## 실질임금은 줄고 노동생산성은 늘고 최악의 '임금 없는 성장'

실질 임금은 줄고 노동생산성은 늘어나는 '임금 없는 성장'이 주요국 중 한국에서 가장 뚜렷한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위원은 '임금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질 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 임금은 2007년~2012년 사이에 2.3% 줄었다. 이에 비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근로자 수로 나눈 한국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2007~2012년 사이 9.8%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비교 대상 1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결국 한국은 비교 대상 주요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고 임금 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해 두 지표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를 빼면 한국의 '임금 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실질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춰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 jswcool@naver.com



<4.24 콜텍 연대문화제>



<4.24 콜텍 연대문화제>



<4.26 제천 대일택시 결의대회>



<4.26 제천 대일택시 결의대회>